사단법인 점프(JUMP) 2017 년도 총회 의사록

1. 일시 : 2017 년 02 월 21 일 오후 7 시 00 분

2. 장소 : 서울시 중구 통일로 1 서울역 본옥 내 '카페자리'

3. 참석자 : 정회원 28 명 중 참석 24 명(이사 6 명, 정회원 3 명, 위임장 제출 13 명)

- 이의헌, 박재홍, 이민선, 김대식, 김용찬, 김재원 (이상 이사진)
- 권채령, 이기백, 이종원 (이상 정회원)
- 김택수, 윤선주, 장연실, 임형준, 허종문, 윤근수, 홍석종, 윤영재, 윤준식, 신원용, 이석재, 이보인, 홍순만 (이상 위임)

- 비의결권자 참관 : 허준, 김진호 (이상 사회인 멘토 겸 정기 후원회원)

4. 안 건

- 제 1 호 의안 : 2016 년 사업 보고 승인
- 제 2 호 의안 : 2016 년 결산 보고 승인
- 제 3 호 의안 : 2017 년 사업 계획 승인
- 제 4 호 의안 : 2017 년 예산 승인
- 제 5 호 의안 : 신규 이사진 선임
- 제 6 호 의안 : 기타 안건 및 자유토의

5. 총회안건 세부 내역

I. 2016 사업보고 (사업보고서 공유)

1. 사업 목표 및 분야
2. 2016 년도 사업실적
3. 2016 년도 결산 – 별도 첨부
4. 2016 년도 발간 자료

II. 2017 사업계획 (사업보고서 공유)

1. 비전 및 사업분야 별 목표
2. 2017 년도 사업계획
3. 2017 년도 예산 – 별도첨부

Ⅲ. 단체 조직 및 현황 (사업보고서 공유)

1. 점프 개요
2. 점프 이사진 소개
3. 조직도
4. 연혁
5. 협력기관

6. 회의내용

발 언 자	회 의 진 행 사 항
이의헌	사단법인 점프의 2017 년도 총회를 여러분의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장 인사말 및 사무국 직원 소개
전원	-인사
	<제 5 호 의안>
이의헌	제 5 호 의안을 먼저 하겠는데요, 새로운 이사진을 먼저 승인을 받고 넘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작년 기존 이사들 임기가 연말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신규이사 모집공고를 냈고, 그 때 세분이 지원해주셨습니다. 그래서 8 명의 이사와 1 명의 감사와 함께 총 9 명의 이사진을 구성하였습니다. 8 명 같은 경우에는 올 해 1 월 1 일 다시 임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총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야 해서 안건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임기 3 년의 신규 이사 후보는 이의헌(이사장), 박재홍(부이사장), 이민선(부이사장), 이세일, 이보인, 김대식, 김용찬, 김재원입니다. 이의가 없으시다면 이렇게 이사진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김진호	이사가 되면 어떤 베네핏이 있어서 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이의헌	이사의 의무는 분명 있습니다. 이사가 되면 월 10 만원씩 이사회비를 내야하구요. 베네핏이라면 한국 사회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선도적 조직의 중추가 된다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김진호	저는 처음 참석했기 때문에 이사로서 하는 업무가 궁금했습니다.
이의헌	총회가 최고 의결 기관이지만 다들 바쁘셔서 총회를 자주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총회의 권한을 받은 이사회가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점프가 나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의헌	참석자분들께서는 신규 이사진을 승인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참석자/전원	제 5 호 의안, 신규이사진 승인을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가결합니다. (박수)
이의헌	**<제 1 호 의안>** 본격적으로 제 1 의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16 년도 사업보고, 결산보고, 2017 년도 사업계획, 예산승인, 기타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우선 사무국 은초롱 총괄팀장께서 2016 년 사업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총괄팀장/은초롱	(2016 년 사업보고 설명 : 별도 자료)
이의헌	2016 년 사업 보고를 해 주신 은초롱님께 감사 드립니다. 2016 년 사업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세요. 이의 없습니까?
참석자/전원	제 1 호 의안, 2016 년 사업보고를 받기를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가결합니다. (박수)
이의헌	**<제 2 호 의안>** 이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2016 년 결산보고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순만 감사의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미리 2016 년도 결산에 대한 감사의견서를 우선 요청 드렸습니다.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요. 이 부분에 이의가 있으신지요? 저희 사업비는 대학생 장학비로 가장 큰 포션이구요, 대학생들이 청소년과 만나고 멘토님들과 잘 만나 성장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출되고,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기백	직원이 12 명 인건가요? 직원 급여가 적은것 같아요.
이의헌	작년에는 9 명, 올 해가 2 월말 현재 12 명 정도인데요, 급여 수준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저희가 파트너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규정에 따라 최저 수준으로 급여가 책정됩니다. 지금은 멘토님들의 회비와 특별한 사용처를 지정하지 않고 주시는 후원금으로 직원 급여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보인 이사님께서 올 해부터 CSO 로 자원 봉사해주셔서, 조직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사업비를 운영해야 할지 사무국과 함께 고민하고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종원	퇴직금은 뭔가요?
이의헌	퇴직급여는 근로공단에 납부하는 부분입니다.
이종원	세금이 발생하네요? 저희 상식으로는 비과세로 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이의헌	세금은 4 대 보험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허준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은 세금이 나가지는 않죠?
이의헌	비영리 부분으로 사업을 진행해도 세금이 똑같이 나갑니다. 목적사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과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2 호 의안에 이의 없으신가요?
참석자/전원	이의 없습니다.
이의헌	2016 년 결산보고를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감사가 끝난 후에는 온라인 통해서 결산 보고 내용을 공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전원	제 2 호 의안, 2016 년 결산보고를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가결합니다.(박수)
이의헌	**<제 3/4 호 의안>** 그럼 2017 년 사업 및 예산 계획을 다시 은초롱 총괄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 점프 스쿨이 내년에 5 년차가 마무리됩니다. 큰 프로젝트가 하나 종료되면 저희처럼 작은 조직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파트너들과 이후 사업에 대해 논의를 해오면서 어떻게 조금 더 큰 규모로 더 많은 학생들과 함께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께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총괄팀장/은초롱	2017 년도 사업 및 예산보고 (별도자료 참고)

이의헌	2017 년 사업과 예산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참석자/전원	없습니다.
이의헌	2017 년 사업과 예산안이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습니다.
참석자/전원	제 3/4 호 의안, 2017 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합니다 (박수)
	<제 6 호 의안 – 기타 안건>
이의헌	기타 안건으로 우선 멘토&Alumni 활성화 방안을 신임 이사님들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대식, 김용찬, 김재원	올 해 예산에 보시면 사회인 멘토 관련 예산이 2 천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젊은 멘토 운영진도 만들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올 해는 멘토단과 알럼나이단을 탄탄히 하는 한 해로 가고자 합니다. (멘토&Alumni 계획 발표 후 자유로운 토론).
권채령	멘토가 몇 명이나 있나요?
이의헌	200 명 정도 있습니다. 멘토분들이 점점 다양해 져서, 그분들에게 소속감을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대규모로 모이는 것 보다는 작은 관심사 위주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려 합니다.
허준	미국 대학들 같은 경우는 역사가 길어서 Young 알럼나이 모임을 따로 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금전적으로 주로 후원하시거나 한 두 번만 참여하시거나. 중간 나이 때 분들이 리드를 잡아 주시면 취미에 집착하지 않아도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의헌	멘토단 편람 관련해서 작년 이사회에서 이야기 했었는데 개인정보와 연결이 되는 문제에요. 그래서 총회에서 편람을 제작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고, 멘토분들에게 3 회정도 이메일과 문자로 연락을 드려서 원치 않으시는 분들, 자신의 정보 중에 빼달라고 하시는 분들 의견을 받고, 의견을 주지 않으시는 분들을 포함하는 식으로 해서 편람을 제작하려고 하구요 그래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그렇게 의결을 해도 되겠지요?

참석자/전원	네
이의헌	멘토분들 알럼나이 중에 젊은 멘토 대상으로 멘토 운영진 알럼나이 운영진을 만들어서 실행하는 조직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지요?
참석자/전원	네
이의헌	사무국에서 준비한 안건이 하나 남았는데요, 상임이사 공석으로 2015 년 하반기부터 제가 상임 이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원의 보수를 이사회에서 정한다'로 정관을 바꾸기로 2016 년도 총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정관 수정 등기를 위해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의 의견을 구하니 이사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며 상임이사 공석시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이 상임이사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변경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의견대로 정관을 바꾸는 것을 허락하시면 바꿔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관 제 3 장 11 조 2 항에 부이사장은 1 명 이내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이민선 이사님이 부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위해 제 3 장 11 조 2 항을 '부이사장: 2 명 이내'로 바꾸려 합니다. 의의 없으시죠?
참석자/전원	네
이의헌	감사합니다. 정관변경의 건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속적으로 멘토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정회원이 되는 권리를 드리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2 년동안 후원을 해주시면 점프에 애착이 있다고 간주하고, 본인이 원하실 경우 사단법인 점프 정회원이 될 수 있는 규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은 정관에 따라 총회 결의 사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정회원이 너무 늘어나면 나중에 참석자가 적어서 총회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책임 있는 조직으로 성장하기 위해 추진하려 합니다.
이기백	점프는 지역과 학교, 기업과 학교 연계를 하시는 거잖아요. 대학교가 없는 지역은 역으로 소외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이 있나요?

이의헌	이 부분도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는데, 대학이 없는 지역 운영 모델은 우리 프로그램을 하려면 정부나 기업이 있어서 프로그램 예산은 있는데 대학이 없다면, 다른 도시로 유학하고 있는 친구들 중 휴학생이나 졸업한 사람의 첫 직장으로 선발하는 거에요. 고향을 떠나 있는 청년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활동하는 거죠. 아직은 해보지 않아서 다양한 의견을 들이며 기획 중인 단계입니다.
권채령	읍면단위에 청소년이 적지 않나요?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아이도 없는데 찾아 간다는 것이...
이의헌	저희 조직으로서는 첼린지한 과제인데 꼭 풀고 싶은 과제이기도 해요.
이기백	동영상 강의를 만드는것은 어떤가요?
이의헌	동영상강의는 우리가 만나는 청소년과는 맞지 않아요. 동영상 강의는 동기부여가 이미 되어 있는 친구들에게 맞는데 저희가 만나는 청소년들은 그 앞 단의 청소년이기 때문입니다.
이종원	진행하시다 보면 지자체나 교육청과 접촉이 되나요? 그런곳에서 점프를 좋아하시나요?
이의헌	교육청과 학교는 정부 조직 중에서 가장 보수적이에요. 교육청도 지자체도 멘토링 프로그램을 많이 하거든요, 서울시에도 동행 프로그램이라고, 서울시와 교육청이 함께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 프로그램과의 조화와 상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기백	일단은 이 취지 자체가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것을 지원해주기 위해 시작하신 거잖아요. 아직은 국영수 외에 다른 쪽, 예술 같은 부분 까지는 진행하지 않는 거죠?
이의헌	저희가 시장조사 했을 때 문화 프로그램은 기존에 이미 많아요. 앞으로 국영수 공부시켜 주는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육이 필요할 까 고민하고 있는데, 대구에서 코딩을 시작 했어요. 반응이 좋았고요. 저희 프로그램 중에 좋은 점 중 하나가, 1 년 동안 지속한다는 것인데 청소년들을 1 년 동안 관찰한다는 거에요.
이종원	코딩 교육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문화예술 쪽은 예산이 너무 넘쳐서

	최순실이 나타난 거에요. 요즘 실용음악과가 뜨거든요, 차라리 그 쪽으로 교육을 해주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해봐요. 방과 후 활동을 갖고 실용음악 컨텐츠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면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권채령	학생들이 더 나이가 있는 어른들을 만나고 싶어 하진 않나요?
이의헌	그래서 올 해 멘토와 장학생과 청소년이 다같이 만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잘 돌아가고 있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점프 상표등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업력이 커지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서.
이의헌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바쁜 시간을 쪼개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 총회 후에는 간단한 식사를 하겠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모두의 박수로 2017 년도 총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졌음을 선포합니다.